

학생 안보현장 체험 소감문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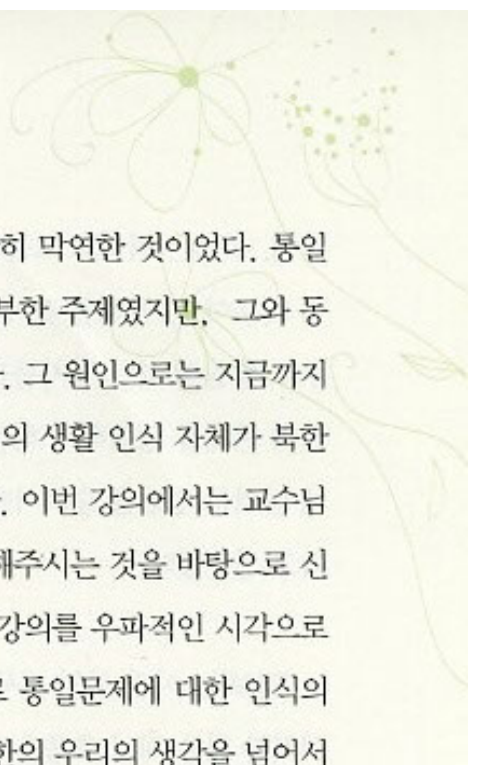
## ‘낙동강 승전기념관’의 의지

김 동 현 (대구 구암고)

이 낙동강 승전기념관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피를 바친 선대의 젊은 용사들의 피가 맺힌 곳이다.

대구 앞산의 낙동강 승전기념관은 6.25전쟁 때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에서 승리를 얻어낸 것에 대한 기념 및 희생된 관련 군인과 시민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다. 건물 안에는 당시의 상황 및 전시물이 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는 탱크, 포 등 역사적 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많은 전시물들이 있었다. 우리 학교는 대구에 있는 학교로, 안보교육을 위하여 이곳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오신 분들의 강의를 듣고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내 머리 속에서 존재해 왔던 통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막연한 것이었다. 통일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언급되어 왔던 진부한 주제였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불분명하고 나의 자아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지금까지 정확하거나 권위 있는 정보를 접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인식 자체가 북한과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수님이나 이 분야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신뢰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의의가 컸다. 비록, 이 분들의 강의를 우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당위성, 주변 정세 및 통일 환경,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 및 특히 북한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강한 위협 등 잘 인식하기 힘든 부분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다. 특히, 주변나라의 선례를 통한 경각심, 한국전쟁에 대한 영상물 및 직접적인 분석은 지금까지의 어떤 다른 교육들보다 직접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 혼란된 시각을 가졌던 내 자아를 다시 평가해 보았다. 지금까지 접해 왔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통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것의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해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나와, 순응적이고 목적적인, 주입되어진 관념 속에서 막연한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나 사이에서 마찰이 일었다. 그러던 중, 이 낙동강 승전기념관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피를 받친 선대의 젊은 용사들의 피가 맺힌 곳이 아닌가. 낙동강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산은 수백,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집단의 성망을 건 싸움의 중심지였다. '그들이 어떤 사명과 이념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바치는 사명감을 보였는가', '내 옆에 있는 이 커다란 나무는 결국 조상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 민족 의지의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곳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인 것이다. 이곳이 낙동강이든 아니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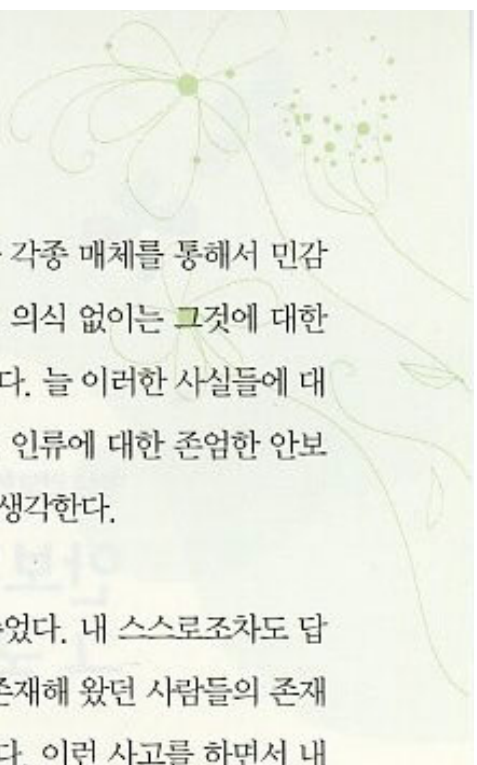
간에,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최소한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무이자, 예의인 것이다. 타는 절박함으로 민족을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스스로를 두고 영원히 떠난 망자들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와 같은 필연으로 우리의 존재를 성립하게 해준 이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겨둔 세상에 남겨둔 정신을 승화시키는 목적으로써, 늘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안보'는 이런 삶의 자세에 정석적인 기본, 이념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더라도 어떠한 힘을 지닌 흐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발판이 필요하다. 그것의 최소한의 범위가 민족과 국가인 것이다. 현재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권위체들의 영향과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구조 내에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의 가장 최소한의 받침이 민족인 것이다.

함께 갔던 선생님께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노벨상, 주식 보유 등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하다고 하시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민족의 한'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민족의 나라 없는 한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세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직접 마주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셨다.

안보란 이런 것이다. 전쟁이나 무력으로부터의 내 집단을 보호하는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민족과 내 집단에 대한 주체적인 필요성의 의식을 깨닫고, 군사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서 적용해야 하는 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강한 나라, 강한 세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상으로, 늘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민감하게 보도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주체적인 의식 없이는 그것에 대한 판단 및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이 기준까지 모호해진다. 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스스로의 사고와 성찰을 통해 나의 민족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인류에 대한 존엄한 안보 의식을 갖는 것이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일종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낙동강 승전기념관으로의 견학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내 스스로조차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족의 정의와,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존재해 왔던 사람들의 존재하지 않는 희망까지 스스로 많은 것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사고를 하면서 내 스스로도 외교관이라는 꿈의 설정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삶의 목표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내 조국과 내 민족,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내 대륙과 내 세계와, 내 우주를 위한 안보의식과 함께 차근차근 세상을 설계하고 싶다. 낙동강의 치열한 최후의 전투의 의지와 열망을 등에 짊어지고, 이어 나가고 싶다. 이것이 나의 '안보'다.